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북부 개항장 진남포화교의 실태*

이은상**

-
- I. 서론
 - II. 개항 이후 진남포화교의 상황
 - III. 1920년대 진남포화교의 실태
 - IV. 배화폭동 전후 진남포 화교사회의 변화
 - V.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북부 개항장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개항 이후 진남포화교의 상황을 서술하였다. 개항 이전부터 중국 산둥, 요녕과 조선 서해안의 황해, 평안도 간 교역이 빈번하였는데, 증남포가 개항되면서 그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선행업(船行業)은 개항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범선으로 수입되는 대표적 물품은 중국산 원염이었다.

둘째, 1920년대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1920년대 전반부 직물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李殷祥,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e-mail: eunha@pusan.ac.kr

잡화상의 규모는 평양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반면 화교상업의 특징으로 선행객잔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부에는 직물잡화업의 경제력이 전반부에 비해 약화되었던 반면, 선행에서 출발한 원염 위탁판매업이 번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배화폭동 전후 진남포 화교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1930년 4월 조선총독부가 식염 전매령을 시행하면서 선행, 염 위탁판매업은 쇠락하였다. 배화폭동으로 진남포의 물적, 인적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직물잡화업은 인근 평양 폭동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았다. 화교 수는 급감하였고,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중화상회는 주류 화상의 몰락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중화상회에서 분리된 중화농회만이 명목을 유지하였다. 이상에서 진남포 화교사회의 변화는 조선총독부의 식염 전매령 시행으로 시작되었고, 배화폭동을 거치면서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진남포화교, 선행(船行), 염상(鹽商), 배화폭동, 평양화교

■ Abstract

The Overseas Chinese in Jinnampo, Colonial Chosun in the 1910s-1930s

LEE Eunsang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Overseas Chinese in Jinnampo, a northern port city in Colonial Chosun in the 1910s-1930s,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ly, It describes their status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Trade between China and the western coast of Chosun, had been frequent even before the opening of the port. With the opening of Jinnampo, it became the central hub for this trade. Their junk transportation business has a long history that dates back before the port's opening, and the representative commodity imported by junk was Chinese-produced raw salt.

Secondly, It examines their status in the 1920s. In the early 1920s, the scale of textile wholesale and general merchandise retail businesses was not as significant as Overseas Chinese in Pyongyang. On the other hand, a characteristic of Chinese commercial activities was the presence of junk transportation operations. In the late 1920s, the economic power of textile wholesale and general merchandise businesses had weakened compared to the earlier years. In contrast, the entrusted sales of raw salt that originated from the junk transportation operations thrived.

Lastly, It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Chinese community before and after the Anti-Chinese Riots. In April 1930, whe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the Salt Monopoly Ordinance, the junk transportation business and the entrusted salt sales declined as a result. While the Anti-Chinese Riots resulted in relatively less material and human damage in Jinnampo compared to other city, the wholesale goods business was affected due to the influence of nearby Pyongyang riots. Due to the decline of mainstream Chinese merchant, th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was unable to formally elect executives and therefore couldn't function properly. Only the Chinese Farmers' Association, which had separated from it, maintained its nominal existence. In conclusion, the changes in the Chinese community bega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alt Monopoly Ordinance and intensified through the Anti-Chinese Riots.

Key-Words : Overseas Chinese in Jinnampo, Junk Transportation Business, Chinese Salt Merchants, Anti-Chinese Riots of 1931, Overseas Chinese in Pyongyang

I. 서론

평안남도 남단에 위치한 진남포는 청일전쟁 이후 1897년 개항, 평양은 그보다 2년 뒤 1899년 개시(開市)되었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지는 지리적 위치상 ‘개방’ 이전부터 중국상인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은 진남포 개항 2년 뒤에 평안남북도, 황해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부영사관을 설치하였다. 1911년 평안북도의 국경도시 신의주에 새롭게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진남포부영사관의 관할은 진남포,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황해도로 확정되었다.

진남포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한국사학계를 중심으로 진남포의 개항 과정과 무역 구조의 변화, 일본의 식민도시로서의 위상, 일본인 이주자에 초점이 맞춰있다(김동희, 2014; 김정남, 2021; 이가연, 2016; 富田精一 엮음, 우정미 옮김, 2013). 중국사학계에서는 재조선 화교 염상(鹽商)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진남포의 사례를 거론하거나, 진남포부영사관 조직의 위상을 검토한 연구가 생산되었다(김희신, 2018; 이은상, 2023).

배화폭동으로 진남포부영사관 관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평양이지만, 진남포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진남포의 도시로서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진남포에는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병참기지가 건설되었다. 개항 이후 설립된 각국조계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인 등이 거주하였고,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영사관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조계의 토지 대부분은 일본인이 점유하였고, 그 영향력도 컸다(김정남, 2021, 331-343). 이처럼 진남포가 일본인에게 ‘발견된’ 개항장이라면, 평양은 조선의 전통적 상업도시였다. 진남포의 화교 대부분은 각국조계 내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평양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잡거’하였다(朝鮮總督府, 1932, 43-45; 박현, 2017).

조선화교사에서 평양과 비교하여 진남포는 화교의 규모, 폭동의 피해

정도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필자는 진남포부영사관 조직과 그 위상, 평양화교의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은상, 2023; 이은상, 2022). 이 글은 그 연장선 상에서 진남포 관련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화교의 상업 실태, 폭동 당시 상황, 폭동 이전과 이후 변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평양화교에 대한 연구성과를 유념하면서, 염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화교상인의 위상이 진남포 화교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밝혀보고자 한다. 관련 자료는 타이완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주조선영사관 자료(駐朝鮮使館檔)를 중심으로, 일본 측 자료를 같이 활용하였다.

II. 개항 이후 진남포화교의 상황

진남포 곧, 20-30호의 황량한 어촌에 불과했던 증남포(甞南浦)에 중국인이 처음 도래한 시점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함대 정박항, 육군의 병참선의 기점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라고 추정되지만(朝鮮總督府, 1924, 162), 조선의 전통적 상업중심지 평양에는 이미 청일전쟁 이전부터 중국인이 도래하여 포백(布帛), 잡화상점을 경영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平壤商業會議所, 1927, 363).

전쟁이 종결되고 1897년 10월 공식적으로 개항과 동시에 일본은 영사관을 개관하였고, 중국은 1899년 한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시점에 부영사관을 개설하였다(前田力 編著, 1926, 35; 이은상, 2023, 250). 영사관이 개설되면서 개항장 증남포에 도래하는 중국인의 숫자도 점차 늘어났다.

증남포부영사 장국위(張國威)가 주한총영사 마정량(馬廷亮)에게 보고한 1907년도 추동(秋冬) 양계(兩季) 상무 정황에 따르면, 개항 다음 해 수입

과 수출액은 5만원(元)에 미치지 못했지만 10년 뒤 1907년에는 56만원(元)으로 10배가 넘었다. 또한 부영사관 관내 ‘화민’(華民)의 호구 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증남포의 화민은 86호, 456명(아이 7명, 부녀 8명 제외), 평양 거주 화민은 67호, 426명(아이 6명, 부녀 4명 제외), 운산 금광 화공(華工)은 207명이다.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를 왕래 유력(遊歷)하는 상인은 69명이다. 그러므로 증남포항과 관내 각 처의 거류 화민은 총 1,183명이고, 나머지 유력하는 ‘신상’(紳商)으로 증남포에 배를 대고 범선으로 연대(煙臺), 안동(安東) 등지를 왕래하며 상업 활동을 하는 자는 324명이다.”¹⁾

이상에서 1907년 증남포 화민은 456명, 평양화교는 426명으로, 증남포와 평양화교의 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범선으로 중국의 연대, 안동 등지와 증남포를 왕래하는 ‘신상’ 324명을 명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개항 이전부터 중국 산둥, 요녕 지방과 조선 서해안의 황해, 평안도 간 교역이 빈번하였고 이들 상인이 교역을 통해 부유해졌으며, 증남포가 개항되면서 그 교역의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1907년 증남포 화상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주일공사 양추(楊樞)는 민정부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해외 거주 교민의 명단을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 명단에는 1907년 9월 기준으로 증남포부 영사가 제출한 증남포 화상 429명의 성명, 관적(貫籍), 도한(到韓) 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907년 추동 양계 화민은 456명이었지만 9월 시점 인원은 429명으로 파악되었다. 그 대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증남포부영사→주한총영사, 날짜 불명, “馬廷亮: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二)”(02-35-056-02), 駐朝鮮使館檔, 145, 156-157. 이하 駐朝鮮使館檔 은 생략함.

〈표 1〉 증남포 화상 명단(1907. 9)

사업	도한 연도(년)	인원(명)	비고(인명 괄호 안은 나이, 도한 연도)
잡화	1-12	39	- 股東(주주): 唐文誥(36세, 8년) 등
船行	1-12	73	- 股東: 黃克忠(26세, 5년), 梁順祥(45세, 12년) 등 - 股伴(파트너): 馬耀廷(35세, 8년) 등
洋廣잡화	1-10	6	
木廠	1-2	3	
木瓦제작	1-9	25	- 股東: 韓秉順(45세, 9년) 등
錢莊	3-5	2	
주점	1-2	4	
飯舖	1-9	5	
浴堂	2-3	3	
재봉	1-3	6	
鹽商	2	3	
小販	1-9	15	
石工	1-8	18	
菜園	2-11	159	- 股東: 倪貴基(47세, 11년), 王書文(39세, 10년) 등
세탁	2	2	
이발	2-4	4	
小工	1-12	62	
총계		429	

〈출처〉 증남포부영사→주한총영사, 광서 33년 9월 17일, “馬廷亮: 華商人數清冊—清查旅韓商民案卷”(02-35-056-15), 55-85.

〈표 1〉에 따르면 1907년 증남포 거주 화교의 업종으로 농업이 가장 많은 159명, 소공(小工) 62명의 뒤를 이어, 선행(船行)은 73명, 잡화업은 39명이 종사하였다. 이 명단에서 눈에 띄는 업종은 선행업으로, 선행업이 잡화업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 이 중 선행업자 황극충(黃克忠)은 1907년 당시 증남포에 온 지 5년 만에 26세의 젊은 나이에 증남포화교를 대표하는 동사

(董事)로 선출되었다.²⁾ 그는 증남포 각국조계의 중국인 차지자(借地者) 10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³⁾

장국위는 1906년도 상무보고서에서 증남포로 수입되는 주요 물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수입하는 어염(魚鹽), 철화(鐵貨), 도기(陶器)와 기타 잡화류는 범선으로 봉천, 산둥에서 평안도, 황해도로 수입되는데, 본전은 싸고 이윤은 크다. 화물 수입으로 인한 이윤이 크기에 화상이 선행을 개설한 경우가 적지 않다.⁴⁾ 이처럼 증남포 화상의 선행업은 개항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범선으로 운반하는 대표적 수입품은 중국산 원염(原鹽)이고 기타 철제품 등이었다.

그러면 1911년 신의주의 개방 이후 증남포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912년 5월 상무보고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증남포는 겨울에 항구가 얼어 겨울에서 초봄까지는 상무가 침체되고 4월 이후 활발해지는데, 이 시점 화상의 수입 화물가액은 15,450여 원이다. 그 중 어염, 철료(鐵料)의 가치가 11,270여 원으로 전체 10분의 7을 차지한다. 어염, 철료를 제외하고 주단, 포목이 대중(大宗)을 이루는데, 봄에 증남포 화상이 판매하는 주단 포목은 27,078원, 평양 화상이 판매하는 주단 포목은 134,280원으로 평양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그 지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평양은 조선의 전통적 도시로 인구가 많고 열차로 수백 리 떨어진 군(郡)까지 모두 판매망에 속한다. 또한 여름에는 하포(夏布)의 수입이 늘어나 상무가 번영을 누린다. 반면 수출화물의 경우 증남포와 중국을 왕래하는 운선(輪船)이 없기 때문에 직

2) 증남포부영사→주한총영사, 선통 2년 3월 23일, “馬廷亮: 人事—派委董事竝請獎”(02-35-060-18), 39-40.

3) 조선총독부외사과. 1911, “外國居留地借地區數面積及借地料調査”(CJA0002275),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소장.

4) 증남포부영사→주한총영사, 광서 33년 2월 15일, “馬廷亮: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一)”(02-35-056-01), 37-39.

접 수출이 어렵고, 주로 화상의 범선을 이용한 수입이 대부분을 이룬다.⁵⁾

이상 신의주 개방 이후 상무보고서에 따르면, 증남포 화상 수입 물품의 70%가 어염, 철료였고, 주단 포목의 판매액은 평양 화상이 증남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증남포와 평양의 지세가 다르기 때문으로, 증남포 화상은 범선을 이용한 어염, 철료 수입 판매를 주로 하고, 평양 화상은 (인천, 경성 화상을 경유한) 주단 포목 수입 판매가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1920년대 진남포화교의 실태

1) 화교의 규모

진남포 개항 전 해 1896년 주한일본공사관의 진남포 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개항 이후 기존에 황해도 및 평안도에서 평양으로 집산, 매매된 대두, 쌀 등이 모두 이곳 진남포로 수입되어, 진남포가 황해, 평안도의 상업중심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남포가 조선의 전통적인 상업중심지 평양을 배후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황해, 평안도 지방의 상권을 흡수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김동희, 2014, 107, 117).

진남포의 개항을 주도한 일본 측은 개항으로 기존 조선의 상업도시 평양의 상권을 진남포가 장악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 같다. 그를 위해 진남포의 당면 3대 사업으로 평남철도의 부설, 축항(築港), 광양만 염전의 실현을 꼽았다. 경의선 개통 이후 경의선의 평양과 진남포를 잇는 평남선은 1909년 준공, 1910년 개통되었다. 제1기 축항 사업은 (1911년 시작하여) 1914년 마무리되었다. 광양만 염전은 (1909년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5) 증남포부영사→주한총영사, 민국 원년 5월 5일, “馬廷亮: 各口商務情形—商務報告(二)”(02-35-056-18), 188-192.

1914년 완공되었다(前田力 編著. 1926, 53-55; 鎮南浦商工會議所 編. 1940, 100-101; 李正熙. 2012, 397).

그러나 일본 측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남포와 평양의 관계는 역전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진남포는 사실상 평양에 ‘압도’되었다. 그 연유는 경의선 철도의 개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진남포 개항 이후 평양에서 진남포까지 기선이 운항되었지만, 경의선이 산업철도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평양의 수이출입(輸移出入)이 수로로 진남포를 거치지 않고 육로로 가능해졌다. 이로써 진남포의 유통권은 진남포부와 황해도를 넘지 않았다(김동희. 2014, 107; 이은상. 2022, 77).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에도 변하지 않았다. 평양상업회의소의 자료에 의하면, 평양은 대동강을 통해 외부 바다와 교통하였다. 진남포 간 기선 운항은 진남포 개항 직후 개시되었는데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쇠락하였다. 특히 평양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대동강 개수(改修), 평양항 항만화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진남포와 평양은 오사카와 고베 처럼 여전히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하였다(平壤商業會議所. 1927, 835-838). 평양상업회의소는 진남포와 평양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진남포를 경유한 수로 비중이 약화되고 철도를 이용한 육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양의 무역 구조를 전제한 것이다.

진남포와 평양의 이러한 관계는 진남포화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진남포와 평양화교의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진남포부, 평양부의 중국인(1912-1942) (단위: 명)

연도(년)	평양부	진남포부	연도(년)	평양부	진남포부
1912	647	854	1928	768	1,072
1913	501	1,246	1929	1,321	1,084
1914	388	469	1930	1,995	1,086

연도(년)	평양부	진남포부	연도(년)	평양부	진남포부
1915	508	303	1931	655	365
1916	348	306	1932	1,238	363
1917	613	317	1933	1,284	484
1918	615	424	1934	1,604	612
1919	652	459	1935	1,597	681
1920	684	516	1936	1,833	725
1921	690	522	1937	871	289
1922	698	539	1938	1,456	434
1923	708	551	1939	2,056	553
1924	714	565	1940	2,154	705
1925	739	1,017	1941	3,154	893
1926	728	1,044	1942	3,970	890
1927	732	1,058			

〈출처〉 이은상. 2022, 4 표를 재구성함

앞서 1907년도 추동 양계 상무정황 보고에 의하면 증남포 화민은 446명, 평양은 426명으로 양 지역의 화교 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2〉에 따르면, 평남철도, 진남포 축항, 광양만 염전 공사 등의 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1912-1914년 진남포화교 규모는 평양을 앞섰다. 그러나 제1차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는 1915년부터 평양부의 수이출(輸移出)이 수로보다 육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진남포와 평양을 오가는 기선이 폐쇄되면서 수로를 통한 수이출이 중단된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제1차대전에 따른 호황으로 조선 특히 평양에 공장 설립이 급증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이은상. 2022, 77-79).

진남포화교는 1925년 1천 명을 돌파하면서 평양을 앞섰지만, 1929년 평양부의 확장으로 평양화교가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배화폭동으로 평양의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

는 지속되어 1942년 시점 평양의 약 22% 정도에 불과한 890명에 그쳤다.

2) 1920년대 전반부 화교의 실태

1920년대 전반부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상업, 제조업, 농업으로 나누어 검토해보려고 한다.

첫째, 1924년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이하 ‘1924 총독부자료’로 약칭함)에 기반하여, 일본 상업신흥소(商業新興所)가 발행하는 상공자산신용록(商工資産信用錄) (이하 ‘발행연도, 신용록’으로 약칭함)을 추가하여, 주요 화교 상업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진남포부 주요 화교 상업 상황(1923. 12)

	상호명 (개잔 연도)	업종	경영자	과세 표준액 (만엔)	- 商工資産信用錄 : 업종, 경영자, 자산액 - 1919년 중화상회: 직책, 성명(업종)
1	謙合盛 (1915)	직물도매	徐益三	7.43	- 會董 楊承儀(주단)
2	德泰東 (1919)	직물도매	杜豊五	4.10	- 1921 신용록: 포목잡화, 杜豊五, 0.5-1 만엔 - 1922 신용록: 직물잡화, 杜豊五, 1-2 만엔 - 회동 杜端年(주단)
3	東德棧	잡화소매		0.70	
4	鈺盛號	잡화소매		0.70	- 회동 陳秉鈺(잡화)
5	德生祥	잡화소매		0.65	- 회동 唐文誥
6	(晉和泰)	(잡화소매)			
7	德春盛 (1907)	토목건축	韓德軒	0.91	- 1922 신용록: 기와재목, 韓秉順, 0.5-1 만엔 - 1925 신용록: 기와재목, 韓秉順 0.5-1

	상호명 (개잔 연도)	업종	경영자	과세 표준액 (만엔)	- 商工資産信用録 : 업종, 경영자, 자산액 - 1919년 중화상회: 직책, 성명(업종)
					만엔 - 회장 韓秉順(건축)
8	德源樓 (1916)	요리점	揚承珊	0.61	- 회동 揚承珊(반점)
9	東華樓 (1917)	요리점	韓德軒	0.55	
10	鎮江樓	요리점		0.48	- 특별회동 鄭克選(반점)
11	三合盛	船行 客棧	(馬耀庭/ 馬明順)	0.64	- 1922 신용록: 염 위탁판매, 馬耀庭, 0.3-0.5만 - 부회장 馬明順(선행 行長)/ 회동 楊 承仁(선행)/ 회동 王兆蕙(선행)
12	(義勝東)	(위탁판매/ 선행)	(馬明順)		- 1918 신용록: 위탁판매, 대표자 불명, 1-2만엔
13	新合盛 (1916)	선행 객잔	(楊君瑞/ 梁順祥)	0.08	- 1918 신용록: 잡화, 위탁판매, 대표자 불명, 0.3-0.5만엔 - 1921 신용록: 잡화, 위탁판매. 楊君 瑞, 0.5-1만엔 - 1922 신용록: 염 위탁판매, 楊君瑞, 0.1만엔 이하 - 1925 신용록: 염 잡화, 楊君瑞, 0.5-1 만엔 - 특별회동 梁順祥(선행 행장)/ 회동 楊文和(선행 경리인)/ 회동 梁富先 (선행 경리인)
14	慶順德 (1923)	선행 객잔	(楊瑞臣)	0.04	- 1925 신용록: 위탁판매, 楊瑞臣, 0.5-1 만엔
15	鴻聚棧 (1920)	선행 객잔		0.05	

	상호명 (개산 연도)	업종	경영자	과세 표준액 (만엔)	- 商工資産信用錄 : 업종, 경영자, 자산액 - 1919년 중화상회: 직책, 성명(업종)
16	(輔仁號)	(직물, 곡물, 석탄/ 선행)	(黃克忠)		- 1922 신용록: 직물석탄, 黃克忠, 1-2 만엔 - 1925 신용록: 곡물석탄. 黃克忠, 재산 불명 - 특별회동 黃克忠(미국상 場長)/ 회 동 車繼貴(미국상 경리인)

〈출처〉 朝鮮總督府. 1924, 162-170; 日本商業信興所. 1918, 1921, 1922, 1925.

〈비고〉 1919년 중화상회 임원 명단은 다음의 자료에 의거함. 진남포부영사→주조선총영사, 民國 8년 6월 26일, “民國八年: 商務—商會改選會員”(03-47-070-01), 3-6.

〈표 3〉에 따르면, 우선, 직물도매상은 2호로 겸합성(謙合盛), 덕태동(德泰東)이다(1-2번). 겸합성은 평양에 본점이 있고 1915년 진남포에 지점을 설치하였다(朝鮮總督府, 1924, 168). 경영자는 서익삼(徐益三)으로 1924 총독부자료에서 확인된 상호 중 과세표준액이 가장 높다. 이보다 늦게 개산한 덕태동의 과세표준액은 겸합성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다음으로, 잡화상은 도매상이 없고 소매상으로 구성되었다. 〈표 3〉에서는 과세표준액이 높은 순서로 동덕간(東德棧), 옥성호(鈺盛號), 덕생상(德生祥) 등 3호를 기재하였다(3-5번).

세 번째로, 토목건축업으로 덕춘성(德春盛) 1호가 있다(7번). 대표자는 한덕현(韓德軒)으로 1924 총독부자료에서 가장 오래된 상호이다. 1922, 1925 신용록에서 대표자는 한병순(韓秉順)이었다. 한병순은 1907년 화상명단에 의하면, 개항 즈음부터 진남포에서 활동하였다(〈표 1〉참고). 네번째로 요리업은 덕원루(德源樓), 동화루(東華樓), 진강루(鎭江樓) 등 3호(8-10번)가 있다. 이 중 동화루의 경영자는 앞서 거론된 덕춘성 경영자 한

덕헌과 동일 인물로 음식점을 겸업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남포항은 중국과 무역하는 범선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위탁판매업 곧, 선행객잔상(船行客棧商)이 개항 초부터 활동하였다. 1924 총독부자료에 언급된 선행객잔상은 삼합성(三合盛), 신합성(新合盛), 경순덕(慶順德), 홍취잔(鴻聚棧) 등 4호이다(11번, 13-15번). 1922 신용록에 따르면 삼합성 대표는 마요정(馬耀庭), 업종은 염 위탁판매업이었다. 마요정은 1907년 화상 명단에서 선행업으로 개항 즈음부터 활동하였다. 마요정과 친척 혹은 동업자로 추정되는 마명순(馬明順)은 1919년 중화상회 부회장으로 삼합성의 선행 행장(行長)이었다.

신합성 대표는 1921, 1922, 1925 신용록에서 양군서(楊君瑞)이고, 업종은 ‘잡화, 위탁판매’, ‘염 위탁판매’, ‘염 잡화’ 등으로 기재되었다. 1919년 중화상회 특별회동 양순상(梁順祥)은 신합성 선행 행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양군서와 친척 혹은 동업자로 추정되는데 1907년 화상 명단에서 선행업으로 개항 즈음부터 활동하였다. 경순덕은 1925 신용록에서 경영자는 양서신(楊瑞臣), 업종은 위탁판매업으로 기재되었다.

위탁판매업의 구체적 영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인천의 사례가 자세하다. 인천은 중국 정크선 곧, 범선의 출입이 성행하였는데 범선의 주된 수입품은 중국 원염이었다. 범선의 선주는 자신의 화물을 가지고 객잔에 숙박하면서 상품의 매매를 의뢰하고, 객잔은 선주와 상인 간을 알선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 곧, 여관 겸 중개업자였다. 이들 객잔 중에는 원염 도매 및 판매 알선 뿐 아니라 운송업, 잡화점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다(朝鮮總督府, 1924, 106-107; 이정희·송승석, 2015, 136). 앞서 신합성의 업종이 ‘위탁판매, 염 위탁판매, 잡화’ 등으로 기재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1924 총독부자료에는 빠졌지만 중요한 2호의 상호가 있다. 그 중 의승동(義勝東, 12번)은 1918 신용록에서 자산 규모 1-2만엔으로, 신용록에 기재

된 선행객잔상 중 수위를 차지하였다. 진남포부영사 장국위의 19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의승동 선행을 개설하고 있는 마명순을 부동사(副董事)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있다.⁶⁾ 의승동은 최소한 1912년 이전에 개잔된 선행으로 1918년 시점 1-2만엔의 자산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마명순은 1919년 중화상회 부회장으로 삼합성 선행 행장이었다. 여기에 의승동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912년 이전에 개설된 의승동은 1918 신용록에 기재되었지만 그 뒤 삼합성으로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상호 보인호(輔仁號, 16번)는 1922 신용록에서는 직물 석탄, 1925 신용록에서는 곡물 석탄 판매업으로 대표자는 황극충이었다. 이에 보인호는 선행으로 출발하여 직물, 곡물, 석탄 판매업으로 업종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1919년 중화상회 특별회동으로 선출되었는데 업종은 미곡상 장장(場長)으로 기재되었다.

이상 1920년대 전반 진남포의 화교 상업 상황은 평양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진남포의 직물도매상은 2호로 그 중 겸합성의 본점은 평양에 있었다. 겸합성보다 늦게 개잔한 또 다른 도매상 덕태동의 경영 규모는 겸합성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잡화상은 도매상이 없고 소매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과세표준액은 모두 1만엔 이하였다. 반면 평양의 경우 유력한 화교상인은 직물수입상과 수입잡화상으로, 이들은 직물, 잡화 수입 판매 외에도 신의주화교 제조업자가 생산한 양말 판매를 담당하였고, 더 나아가 직접 양말제조업에 뛰어들면서 평양의 조선인양말제조업과 경쟁, 갈등할 정도로 상세를 확대해갔다(이은상, 2022, 81-85).

다음 진남포 화교상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선행객잔상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이는 인천과 더불어 진남포가 중국과 범선 무역이 왕성한 개항장이

6) 증남포부영사→주조선총영사, 민국 원년 9월 26일, “馬廷亮: 人事一派委員董事丁憂等事”(02-35-060-25), 50-52.

기 때문으로, 주된 수입품은 중국산 원염이었다. 이들은 선행이면서 동시에 염 위탁판매업, 더 나아가 잡화상 등을 겸하기도 하였다. 1919년 중화상회 회장은 덕춘성 한병순, 부회장은 삼합성 마명순, 특별회동 2명은 보인호 황극충, 신합성 양순상이었다. 1923년 시점 중화상회 회장은 한병순에서 황극충으로, 부회장은 마명순에서 양순상으로 바뀌었다(朝鮮總督府. 1924, 164). 이 중 한병순을 제외하고 모두 선행업 종사자였다.

이들이 화교사회의 주류임은 1920년 기준 각국조계의 중국인 차지자(借地者) 명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농업경영자를 제외하고 덕춘성(건축업) 한덕현, 보인호(미곡상) 황극충, 신합성(선행) 양순상, 겸합성(직물) 서익삼, 진화태(잡화) 당문고(唐文誥) 등이 차지자로 이름을 올렸다. 1907년 화상 명단에서 당문고는 잡화상으로 명기되었는데 상호는 진화태임이 확인된다. 이들 중 양순상의 차지면적이 가장 넓고, 그 뒤를 황극충이 잇고 있다.⁷⁾

반면 1924 총독부자료에는 평양 화상의 업종으로 선행객잔, 염 위탁판매업 기록이 없다. 진남포 화상이 평양의 염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의주 개방 이후 진남포 상무보고서로 다시 돌아가보면, 진남포 화상은 법선을 이용한 중국 원염 수입 판매, 평양 화상은 (인천, 경성 수입직물상을 경유한) 주단 포목 수입 판매가 우세함을 1920년대 시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앞서 화교 상업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공장 현황을 검토해보자. 1924 총독부자료에서는 중국인을 고용하는 공장 5호의 명칭과 소재지 및 고용 인원, 임금을 표로 제시하였다(朝鮮總督府. 1924, 170-171). 그에 따르면 1호는 일본인 철공소, 1호는 조선인 송공

7) 日本海軍省. 1920, 外國人土地法關係 2 (C08021704400), JACAR. 이하 1920년 각 국조계 중국인 차지자와 차지면적에 관한 내용은 이 자료에 의거함.

장이고, 나머지 3호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기와공장이다. 중국인 공장 3호 중 2호는 상호 혹은 경영자의 이름을 따서 공장명을 지었다. ‘덕춘성 기와공장’은 덕춘성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다. ‘예귀기(倪貴基) 기와공장’은 농업경영자 예귀기가 운영하는 공장이다. 후술하겠지만 예귀기는 진남포를 대표하는 농업경영자이다. 반면, 평양에는 화교가 운영하는 주물공장 5호가 있는데(이은상, 2022, 85), 진남포에는 별도의 주물공장이 설립되지 않았다.

셋째, 농업경영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진남포는 과수업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1924 총독부자료에 의하면 진남포 과수원의 주된 경영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고, 일본인 소유의 과수원도 경작, 재배는 거의 중국인이 담당하였다. 이들 중국인 농업자 중 예귀기, 옥성호(잡화점, <표 3> 4번) 등 4명은 상설시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야채를 판매하였다.

1924 총독부자료에서는 중국인을 고용하는 과수원과 야채농원 각각 10호, 4호의 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소재지와 평수, 경영자를 명기하였다(朝鮮總督府, 1924, 173). 그에 따르면 과수원 10호 중 일본인 경영자는 6호, 중국인 경영자는 4호이고, 야채업 4호의 경영자는 모두 중국인이다. 진남포의 ‘식민자’(이가연, 2016, 407-411)로 이름이 알려진 일본인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과수원을 포함하여 일본인이 경영하는 과수원 규모는 최고 42,900평부터 7,500평까지 차이가 있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과수원은 6,000평에서 1,500평까지로 일본인보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진남포 농업에서 화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중국인 경영자와 관련하여 3명이 눈에 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황극충은 선행업, 석탄 판매업, 미곡상이면서 1,500평의 과수원 경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1911년에 이어 1920년 각국조계 차지자 명단에 등장하였다. 유진동(劉振東)은 2,000평의 과수원 경영자로, 1920년 각국조계 차지자 명단에 기재되었다. 1907년 화상 명단에 등장하는 예귀기는 중국인으

로는 가장 규모가 큰 6,000평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그는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동업자와 상설시장에서 야채과일 판매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이름을 가진 기와공장을 운영하였다. 1919년 중화상회 회동으로, 1920년 각국조계에서 중국인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차지한 대표적인 화농이었다.

3) 1920년대 후반부 화교의 실태

1920년대 후반부 화교의 실태를 1929년 경성상업회의소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상공자산신용록 등을 추가하여 검토해보자. 이 두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진남포부 주요 화교 상업 상황(1928-1929)

京城商業會議所 자료						商工資産信用錄				
상호	업종	소재지	대표자	연간 매상액 (엔)	영업 세액 (엔)	상호	업종	대표자	추정자산 (만엔)	
1 德生祥	잡화, 면사포 도소매	三和町	劉殿臣	15,000	13.50					
2 晉和泰	잡화 도소매	後浦里	王桂緒	14,000	10.00					
3 謙合盛	포목 도매	龍井里 (旭町?)	徐益三	75,000	45.19					
4 慶順德	원염 위탁판매	三和町	楊瑞臣	보상액 3,199	31.99	慶順德	염 위탁	楊瑞臣	1-2	
5 新合盛	원염 위탁판매	三和町	王福堂	보상액 3,541	35.41	新合盛	염 위탁	梁順祥	1-2	
6 德聚東	원염 위탁판매	三和町	張香亭	보상액 1,500	15.00	德聚東	염 위탁	張香亭	1-2	
7 三合盛	원염 위탁판매	旭町	宮潤術	보상액 1,839	18.39	三合盛	염 위탁	宮潤術	1-2	

〈출처〉 京城商業會議所 編. 1929: 日本商業信興所. 1929.

〈비고〉 京城商業會議所 자료에는 상호가 명기되지 않아 필자가 첨가함

京城商業會議所 자료 조사 시점은 1928년 12월, 상공자산신용록 조사 시점은 1929년 5월임

〈표 4〉에 따르면 우선, 경성상업회의소 자료에서는 직물잡화상 3호가 등장한다. 이 중 직물도매업 1호는 겸합성으로 대표는 서익삼이다(3번). 연간매상액, 영업세액에서 수위를 차지한다. 잡화, 면사포 도소매업 2호의 대표는 각각 유전신(劉殿臣), 왕계서(王桂緒)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중 유전신은 1930년 중화상회 감찰위원으로 덕생상(德生祥)의 경영자로 기재되었다.⁸⁾ 덕생상은 1924 총독부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왕계서가 경영하는 상호(2번)는 확인이 어렵지만 진화태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화태 당문호는 1907년 화상 명단에 처음 등장하는데, 1920년 각국조계 차지자 명단에 언급되었고 1919년 중화상회 회동에 이어 1930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기에 잡화상으로 유력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 직물잡화상 3호는 1929 신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염 위탁판매업 4호가 등장하는데(4-7번) 이들 4호는 1929 신용록에도 언급된다. 그 중 경순덕의 양서신, 덕취동(德聚東)의 장향정(張香亭), 삼합성의 궁윤술(宮潤術) 등은 두 자료에서 언급된 경영자가 동일 인물로 쉽게 상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합성의 경우 1929 신용록에서는 양순상으로, 경성상업회의소 자료에서는 왕복당(王福堂)으로 기재되었다. 다만, 미곡, 석탄판매업에 종사했던 황극충의 보인호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경성상업회의소 자료에서 영업세액이 가장 높은 겸합성을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선행 4호이며, 1929 신용록에는 이들 선행 4호만이 기재되었다.

8) 진남포중화상회→주조선총영사관, 민국 19년 2월 28일, “民國十九年: 商務—商會改組”(03-47-191-04), 84-85. 이하 1930년 중화상회 임원 명단은 이 자료에 의거함.

지금까지 1920년대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 보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직물잡화업과 관련하여 1920년대 전반부에는 겸합성을 필두로 덕태동, 동덕잔, 옥성호, 덕생상, 진화태 등의 상호명이 확인되지만, 1920년대 후반부에는 겸합성, 덕생상, 진화태(추정) 등 3호로 줄어들었다. 덕태동은 겸합성과 더불어 직물도매상의 한 축을 차지했지만 후반부에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후반부에는 원염 위탁판매업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삼합성, 신합성, 경순덕 등 3호는 1920년대 전반부 자산액이 모두 1만엔에 미치지 못했지만 1929년에는 1-2만엔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1930년 중화상회 임원 명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1929년 1월 진남포 선행 3기—삼합성, 신합성, 경순덕—는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이익과 손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조합명을 공동사(共同社)로 지었는데,⁹⁾ 공동사 대표 황보규(黃寶奎)가 중화상회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겸합성(직물), 신합성(염 위탁), 협순창(協順昌, 잡화), 덕원루(요리) 등 4호는 상무위원, 진화태(잡화), 진강루(요리), 덕성루(德盛樓, 요리), 중화탕(中華湯, 업종 불명), 경순덕(염 위탁) 등 5호는 집행위원, 덕생상(잡화), 덕춘성(건축, 기와재목), 동화루(요리), 원순화(源順和, 잡화), 향승화(恒昇和, 잡화) 등 5호는 감찰위원이었다. 염 위탁판매상을 주축으로 직물잡화, 건축업, 요리점 경영자 등이 중화상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경영자도 진남포 화교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중화농회가 조직되면서 중화상회에서 분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9) 진남포분관→주조선총영사관,民国 19년 3월 5일, “民國十九年: 商務—僑商鹽業及海關輸入狀況”(03-47-191-05), 34-35.

IV. 배화폭동 전후 진남포 화교사회의 변화

1920년대 후반 진남포 화교사회에서 선행 곧, 염 위탁판매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은 서술했지만, 조선총독부가 1930년 4월 1일자로 식염 전매령을 시행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공동사 대표이자 선행 삼합성 대표 황보규는 이 문제에 적극 나섰다. 그는 진남포분관(판사처) 수습영사 서원달(徐源達)을 면담하고, 외염 관리령이 중국 내 수출 염상, 여선(旅鮮) 선행업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 외 잡화상, 요리점, 만두집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총영사관에서 조선총독부와 이 문제에 대해 교섭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⁰⁾

식염 전매령은 정부 혹은 정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염의 수입과 이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남포에는 공동사 곧, 선행 3가 외에 는 외염 취급 상인이 없었기에 조선총독부 전매국은 공동사에 독점 수입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가격과 수입량 모두 전매국이 결정했기에 수입염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수입업자 지정과 별도로 판매는 전매국이 지정한 판매업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공동사는 판매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진남포를 포함하여 조선 내 화상은 모두 판매상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조선총영사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본국 공상부, 재정부와 연락하고, 조선총독부와 진남포, 인천 등 화교 염상이 받게 되는 영향과 그 구제 방법에 대해 협상을 하였으나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희신, 2018, 103-110).

진남포분관에서는 1932년 9월 시점 “중국의 원염이 조선에 수입된 수량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0) 진남포분관→주조선총영사관, 민국 19년 3월 13일, 「民國十九年: 商務—僑商鹽業及海關輸入狀況」(03-47-191-05), 52-55.

조선 전체 식염의 소비량은 매년 약 5억 4백만 근으로 종류는 3종이 있다. 그 하나는 천일염으로 2억 5천만 근, 둘은 전오염(煎熬鹽)으로 5천 4백만 근, 셋은 수입염으로 2억만 근이다. 이 중 세 번째 수입염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데, 그 세월이 이미 20여 년이 되었다. 매년 소비가격은 총 일금 200만엔 이상으로 이를 경영하는 해당 화교는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으며, 중국인으로 염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민국 19년 4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가 식염 전매령을 시행하면서 이후 타격을 입었다.……염상이 이로 인해 실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소금 운반을 기다리며 생계를 영위하는 수백 척의 범선 역시 드디어 폐업하게 되었으니……중국 원염의 조선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로 그 하나는 조선산 염의 수량이 증가를 보이고, 두 번째는 실로 염 전매법 때문이다(밑줄은 인용자).¹¹⁾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원염의 조선 수입에 따른 화교상인의 이익, 식염 전매령 시행 이후 수입염의 감소, 염상의 실업, 범선의 폐업 등 일련의 과정을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진남포화교 상업 상황은 식염 전매령 이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배화폭동 이전부터 화교사회의 주류는 쇠락하고 있었다.

폭동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주조선총영사관이 주일공사관에 보고한, 폭동으로 인한 사상자수와 재산손실액 최종 통계를 살펴보면, 진남포에서는 6일 오후 2시에 폭동이 시작되어 중상 1명, 경상 18명이 발생하고, 재산손실액은 11만 7천엔을 넘었다. 조선 전역에서 발생한 이 폭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경성, 부산 그리고 진남포였는데, 중상자는 경성 6명, 부산 2명, 그리고 진

11) 주조선총영사→외교부, 민국 21년 9월 17일, “중국 原鹽이 조선에 수입되는 수량이 감소한 원인”,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六)”(03-47-222-08), 5.

남포는 1명이었다. 재산손실액은 부산의 피해가 가장 적었고 그 뒤로 신의주, 진남포 순이었다(이은상, 2016, 96-97). 통계적으로 진남포의 인적, 물적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폭동이 발생한 뒤 외교부는 주일공사 왕영보(汪榮寶)에게 사건의 경위 조사와 경사(京師, 남경) 행을 명하였다. 왕영보는 조선 각지를 실지 조사 하면서 외교부에 몇 차례의 전보와 보고서를 보냈다. 이 중 진남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7월 5일 저녁 7시 쯤 평양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진남포분관의 책임자로 수습영사 신분의) 서원달(徐源達)은 6일 아침 이 소식을 듣고 직접 평양으로 갔다가……진남포의 상황이 긴급해지자 다시 돌아왔다. 6일 오후 2시 쯤 조선인이 도처에 군집하자 무장경찰이 수시로 해산시켰다. 교민들이 분분히 영사관으로 피난하였고, 주변부 외곽에서 농원, 상점을 운영하는 교민들은 경찰서와 교섭을 거쳐 경찰이 조사, 호송하였다. 상황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이미 구타를 당했다. 6시에 교민은 전부 수용되었다. 7시에 폭도가 계속 늘어나자 경찰이 진압하였지만 숫자가 적어 역부족이었다. 교민의 농원과 일부 상점은 투석으로 훼손되고 불태워졌다. 다음 날 7일부터 영사관 습격설이 있었는데……다행히 6일 저녁 전화로 도청과 교섭하여 군경이 추가로 파견되어 안정을 찾아갔다. 비록 재산상 손실을 면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교민이) 일찍 수용되어 ‘참극’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밀줄은 인용자).¹²⁾

이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진남포에서 폭동이 발생하자 교민들이 비교적 일찍 영사관으로 피난, 수용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평양에서 참극이 발생한 것과는 대비되었다.

한편 일본은 국제연맹 중국조사위원단의 방문을 앞두고 조사위원단에

12) 주일공사→외교부, 민국 20년 8월 6일, *朝鮮暴動排華* 5 (020-990600-3012), 타이완 國史館 소장. 35-50.

제출할 답변 자료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작성한 배화폭동, 일본 측의 표현에 따르면 ‘조선 내 지나인 배척 사건의 개황’(1931. 7)에 관한 비밀문건이 포함되었다. 이 중 사건의 경과에 관한 항목에서 진남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진남포에서는 7월 2, 3일 경부터 지나인에 대한 태도가 점차 악화되었다. 5일 심야에 삼화정 지나요리점 동화루에 어떤 사람이 투석을 하면서 조선인 군중이 점차 늘어나 정세가 악화되었다. 투석, 폭행 등이 일어나자 인근 경찰서로부터 10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다. 6일은 보조 헌병 20명이 투입되어 경계에 노력한 결과 지나인 경상 7명, 방화 27건 등 외에 사고가 없었다.”¹³⁾ 이상 일본 측 보고서는 앞의 중국 측 보고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발생 시점이 6일 오후 2시가 아니라 5일 심야였고, 사상자수는 중상은 없고 경상 7명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진남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폭동으로 진남포화교는 급감하였다. 앞서 언급한 <표 2>에 의하면 1930년 1,086명이었던 화교 수는 1931년 365명, 1932년 363명, 1933년 484명으로 폭동 2년 뒤에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폭동 1년 뒤 *평양매일신문(平壤每日新聞)* (1932.7.4)에 게재된 “진남포의 중국인”에 따르면, 조선에 돌아오지 않은 원인은 대개 작년 곧, 1931년 7월 사건의 재차 발생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7월 사건으로 생계의 기반이 모두 파괴되어 돌아온다고 해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었다.¹⁴⁾

그러면 진남포화교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932년 말 시점 진남포분관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진남포화교 상무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3)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鮮內ニ於ケル支那人排斥事件ノ概況”(CJA0002321),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소장.

14) “진남포의 중국인”(평양매일신보 1932.7.4),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三)”(03-47-222-05), 130.

진남포항은……평안남도의 주요 항구로 당시 조선의 공산업이 아직 유치한 시기여서 산동성 상인이 포백, 잡화를 싣고 아울러 범선으로 원염을 싣고 오는 자가 적지 않았다. 민국 20년 초에 이르러 평안, 황해 각 도의 상권은 평양, 진남포 두 곳의 화상이 패권을 유지하였다. 당시 본 항에서 잡화점을 경영하는 화상은 대소 50여 가가 있었다. 민국 20년 여름 조선인의 배화 사건이 발생하여 진남포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평양의 손실은 참혹한 사항이어서 교민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진남포와 평양의 거리는 30리에 불과하였다. 이에 진남포항의 화상이 속속 귀국하면서 상권은 무형 중에 일본상인에게 탈취되었다. 다만 본년에 들어와 화상이 점차 증가하여 농업의 경우 배화 안건 발생 당시 20여 가로 감소했지만 현재는 48가로 늘어났다. 본 항은 중국 상해, 천진 각 처와 교역이 빈번하고 평양의 중요 항으로, 당시 화상의 요리업 경영자는 모두 67이고 나머지는 잡화상으로 모두 127이다. 소위 잡화상은 포백과 기타 한국인의 일용상품을 판매하였다. 요리업은 아직은 판매수익이 나는 편으로……당시 화상의 말에 따르면 재차 배화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교 상무의 전도는 점차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밀줄은 인용자).¹⁵⁾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배화 사건으로 화상이 대부분 귀국하였으나, 1932년이 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화상이 늘어나 농업 48호, 요리업 6호, 잡화상 12호가 활동하였다. 이어 진남포 화상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 진남포부 화상 명단(1932. 12)

	영업 종류	상호	경영인	경영 연수 (년)	비고
1	요리업	德源樓	楊承時	21	- 1930 상무위원 楊雲藻 - 1924 총독부자료: 경영자 楊承珊

15) 分駐鎮南浦副領事館, “진남포 화교 최근 상무 정형”, 민국 21년 12월 19일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七)”(03-47-222-09), 駐朝鮮使館檔, 120-121.

	영업 종류	상호	경영인	경영 연수 (년)	비고
2	요리업	德盛樓	林熙永	15	- 1930 집행위원 林熙永
3	요리업	東華樓	孫松林	15	- 1930 감찰위원 孫書桂 - 1924 총독부자료: 경영자 韓德軒
4	요리업	鎮江樓	王兆章	20	- 1930 집행위원 鄭克選 - 1924 총독부자료 - 1919 특별회동 鄭克選
5	요리업	匯海樓	梁萬祥	14	
6	요리업	東興樓	李永年	6	
7	잡화점	源盛公	劉玉珍	7	
8	잡화점	寅和順	楊言省	20	
9	잡화점	東德棧	金德生	25	- 1924 총독부자료
10	잡화점	協順東	楊樂山	2	
11	잡화점	晉和泰	唐鎮東	30	- 1930 집행위원 唐震東 - 1919 회동 唐文誥 - 1929 경성상업회의소자료: 경영자 王桂緒
12	잡화점	承單商店	楊清齋	5	
13	잡화점	萬盛德	李君年	3	
14	잡화점	東興棧	王鴻君	2	
15	잡화점	復成	張樂德	4	
16	잡화점	復興商店	盧如春	3	
17	잡화점	晉德棧	李鴻九	2	
18	잡화점	德祥和	姜明九	9	

〈출처〉 分駐鎮南浦副領事館, “진남포 화교 최근 상무 정형”, 민국 21년 12월 19
일,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七)”(03-47-222-
09), 120-121.

〈비고〉 비고란은 지금까지의 서술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경영연수와 1924 총독부자료의 개간 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나 대략을 파악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기재함

〈표 5〉는 폭동 이전과 이후 진남포 화상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선행호, 염상은 보이지 않는다. 1930년 4월 식염 전매령 시행 이후 쇠락하면서 업종을 접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건축업 덕춘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덕춘성은 1924 총독부자료에서 가장 오래된 상호로, 1919년 중화상회 회장, 1930년 감찰위원으로 선출되었지만, 배화 사건을 버티지 못한 것 같다. 세 번째로 직물도매업 겸합성, 덕태동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평양 사건으로 평양의 겸합성이 몰락하면서 진남포의 겸합성도 업종을 접었기 때문이며, 덕태동은 이미 1920년대 후반부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네 번째로 잡화상 12호 중 청말부터 영업을 했던 2호는 동덕잔(9번), 진화태(11번)이다. 동덕잔은 1924 총독부자료에 기재되었고, 진화태는 1919년 중화상회 회동(唐文誥), 1930년 중화상회 집행위원(唐震東)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1929년 경성상업회의소 자료에서 언급된 잡화상 2호, 1930년 중화상회 임원 명단에 기재된 잡화상 5호 중 진화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다. 직물포목상 뿐 아니라 잡화상 역시 평양 사건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동덕잔, 진화태 등 2호를 제외하고 남은 10호는 거의 대부분 1920년대 후반 비교적 최근에 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리업 6호 중 덕원루, 덕성루, 동화루, 진강루 등 4호(1-4번)는 1930년 중화상회 상무, 집행, 감찰위원 등으로 선출되었다. 폭동 이후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업종이 요리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요리업의 위상은 전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상에서 폭동 이후 진남포 화교사회는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선행, 염상은 몰락하고 포목도매상, 건축업자는 업종을 정리하면서 상세가 약화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은 업종으로 요리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잡화상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체되었다.

1933년 6월 진남포분관에서는 관할 화교 단체를 조사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할 단체는 진남포중화농회, 평양중화상회, 해주중화상회, 장연화교공회(華僑公會), 검이포화교공회 등 5곳이고, 나머지는 주석 혹은 위원이 귀국하여 아직 정식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자료는 폭동 당시 유실되었다.¹⁶⁾ 이 5곳 중 진남포중화상회는 빠졌다. 주석 혹은 위원의 귀국으로 정식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에 화교를 대표했던 선행, 염상, 그리고 직물잡화업, 건축업 등의 쇠락으로 중화상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표 5>는 중화상회 임원 명단이 아니라 화상 명단에 불과하였다.

진남포중화농회는 진남포 후포리에 위치하는데, 회장 혹은 주석은 왕서문(王書文)으로 회원은 40명이다. 1928년 말 농상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조사표에는 책임자 서명으로 왕서문, 유문거(劉文學), 소전례(邵傳禮), 우문정(于文廷), 강명구(姜鳴九) 등 5명의 이름이 보인다. 이 중 왕서문, 강명구는 1924 총독부자료에서는 빠졌지만 1920년 각국조계의 차지자로 언급된 인물이다. 그런데 중화농회 명단에 진남포의 대표적 농업경영자 예귀기의 이름은 없다. 그는 1920년 각국조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차지한 인물이지만, 폭동 이후 업종을 접거나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9 신용록에서 진남포 선행 3가가 이름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신용록에 더 이상 진남포 화상은 보이지 않는다. 폭동 이후 진남포화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이상과 같은 경제력 약화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16) 分駐鎮南浦代理副領事館事務→주경성총영사, 민국 22년 6월 17일, “民國二十二年: 僑務—指導海外僑民組織團體”(03-47-228-08), 49-51.

V. 결론

이 글에서는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북부 개항장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 이후 진남포화교의 상황을 서술하였다. 개항 이전부터 중국 산둥, 요녕과 조선 서해안의 황해, 평안도 간 교역이 빈번하였는데, 증남포가 개항되면서 그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선행업은 개항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범선으로 수입되는 대표적 물품은 중국산 원염이었다. 반면 평양 화상은 주단 포목 수입 판매가 우세하였다.

둘째, 1920년대 진남포화교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일본 측은 진남포의 개항으로 조선의 상업도시 평양의 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연유는 경의선 철도의 개통 이후 평양의 수출입이 수로로 진남포를 거치지 않고 육로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진남포와 평양의 이러한 관계는 진남포화교의 규모에도 반영되었다. 1920년대 전반부 직물도매상, 잡화소매상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반면, 평양의 유력 화교 상인은 직물수입상, 수입잡화상으로 평양의 직물업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진남포 화교상업의 특징으로 선행객잔상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선행이면서 염 위탁판매업을 겸하였다. 반면 평양에는 이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1920년대 후반부에는 직물과 잡화업의 경제력이 전반부에 비해 약화되었던 반면, 원염 위탁판매업이 번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배화폭동 전후 진남포 화교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1920년대 후반 선행, 염 위탁판매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30년 4월 조선총독부가 식염 전매령을 시행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이에 염상을 실업하고 범선은 폐업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배화폭동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진남포의 물적, 인적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포목잡화업은 인근 평양 폭동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았다. 화교 수는 급감하였고,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중화상회는 주류 화상의 몰락으로 정식으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중화상회에서 분리된 중화농회만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상에서 진남포화교의 경제력 약화와 그로 인한 화교사회의 변화는 조선총독부의 식염 전매령 시행으로 시작되었고, 배화폭동을 거치면서 가속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북부 개항장 진남포화교의 실태 | 이은상

투고일: 2023.11.01. 심사완료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 참고문헌 |

1. 자료

駐朝鮮使館檔,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所藏

- “馬廷亮: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一)”(02-35-056-01)
- “馬廷亮: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二)”(02-35-056-02)
- “馬廷亮: 華商人數清冊—清查旅韓商民案卷”(02-35-056-15)
- “馬廷亮: 各口商務情形—商務報告(二)”(02-35-056-18)
- “馬廷亮: 人事—派委董事竝請獎”(02-35-060-18)
- “馬廷亮: 人事—派委員董事丁憂等事”(02-35-060-25)
- “民國八年: 商務—商會改選會員”(03-47-070-01)
- “民國十九年: 商務—商會改組”(03-47-191-04)
- “民國十九年: 商務—僑商鹽業及海關輸入狀況”(03-47-191-05)
-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三)”(03-47-222-05)
-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六)”(03-47-222-08)
- “民國二十一年: 調查報告—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七)”(03-47-222-09)
- “民國二十二年: 僑務—指導海外僑民組織團體”(03-47-228-08)

朝鮮暴動排華 5 (020-990600-3012), 臺灣 國史館 所藏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總督府外事課. 1911, “外國居留地借地區數面積及借地料調查”(CJA0002 275)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鮮內ニ於ケル支那人排斥事件ノ概況”

(朝鮮總督府警務局. 1932, 國聯支那調查委員關係書類 (CJA0002321) 수록)

日本海軍省. 1920, 外國人土地法關係 2 (C08021704600), JACAR

- —————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북부 개항장 진남포화교의 실태 | 이은상

日本商業信興所, *商工資産信用録*

-1918년, 1921년, 1922년, 1925년, 1929년 조사자료

(李正熙, 2012,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附表 수록)

朝鮮總督府. 1924,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32, *平壤府(調査資料 第34輯, 生活狀態調査 其4)*, 京城: 朝鮮總督府.

前田力 編著. 1926, *鎮南浦府史*, 鎮南浦: 鎮南浦史發行所.

平壤商業會議所. 1927, *平壤全誌*, 平壤: 平壤商業會議所.

鎮南浦商工會議所 編. 1940, *伸びゆく鎮南浦 興亞の一翼*, 鎮南浦: 鎮南浦商工會議所.

京城商業會議所 編. 1929, “朝鮮に於ける外國人の經濟力”, *朝鮮經濟雜誌* 159, 京城商業會議所.

2. 연구 논저

이정희·송승석. 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富田精一 역음, 우정미 옮김. 2013, *식민지 조선의 이주 일본인과 지역사회—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 서울: 국학자료원.

李正熙. 2012,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김동희. 2014, “진남포의 개항 과정과 무역구조의 변화(1897-1910)”, *역사연구* 26, 역사학연구소, pp. 105-146.

김경남. 2021,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71, 한일관계사학회, pp. 325-368.

- 김희신. 2018, “재조선 화교 염상과 조선총독부의 외염 관리”, *중국근현대사연구* 77, 중국근현대사학회, pp. 91-115.
- 이가연. 2016,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 축적과 조선 인식”,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pp. 391-428.
- 이은상. 2016, “원산화교와 배화폭동”, *중국근현대사연구* 72, 중국근현대사학회, pp. 91-117.
- 이은상. 2022, “식민지 조선 평양화교의 실태—배화폭동 이전을 중심으로”, *동양학* 8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pp. 73-94.
- 이은상. 2023, “조선 북부 개항도시 진남포의 중국영사관 조직과 그 위상”, *중국사연구* 145, 중국사학회, pp. 247-280.

3. 기타

- 박현. 2017, “일제강점기 평양의 도시공간 분석”, 한국역사연구회(<http://www.re dian.org/archive/109680> (검색일: 2023.8.8)).

